

# 광주 영어 사교육 열풍 거세다

**원어민 강사 1년새 2배 이상 급증  
일부 대형 학원 유치원생이 30%나**

주거지역을 관할하는 서부교육청 내 원어민 강사 수는 지난해 63명에서 올해 210명으로 233%나 늘었다.

각급 학교와 학원들의 원어민 교사 수요가 급증하는가 하면,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연령층이 유치원 어린이까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영어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것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형 토의·토풀'인 2012년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가 2010년부터 현재보다 1시간씩 늘어나기로 돼 있어 영어 열풍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12월 현재 광주시내 어학원에서 활동 중인 원어민 강사 수는 모두 324명이다. 지난해 원어민 강사 수가 14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무려 123.4%인 179명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상무지구와 풍암지구 등 신흥

어민 보조교사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영어교육 열풍에 따라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의 나이가 더 어려지고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닌 게 됐고, 일부 대형 영어학원에는 유치원 어린이들까지 영어 배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M 유치원 원장은 "교부부가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은 시도조차 할 수 없지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은 원어민을 채용하거나 한국인

을 이용한 영어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유치원은 232곳(공립 106곳·사립 126곳)이다.

광주 상무지구의 대형 영어학원인 L학원 원장은 "5~7세의 유치부 비율이 전체 학원생의 30% 정도 된다"며 "학부모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져 매년 15% 정도 원생들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14명의 원어민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 학원은 최근 1명을 추가 영입했다.

광주 농성초 한 교사는 "전에는 우리 아이가 EBS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왔어요"라며 자랑하듯 말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학원을 보내야 하는 거'라고 물기도 하고, '좋은 학원 있으면 소개 좀 시켜 달라'고 말하는 학부모들도 많아졌다"며 "실용영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추진하면서 사교육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제 철 맞은 굴 본격적인 굴 채취철이 다가왔다. 정홍군 용산면 남포리 어민들이 28일 한겨울 친비름을 뚫고 '바다의 우유'라는 굴을 따고 있다.

/위지령기자 jrw@kwangju.co.kr



## 피고인 외면 아쉬움 속 대체로 성공적

국민참여재판 1년

동료 숨지게 한 선원, 광주지법 참여재판서 징역형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올해 첫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이 1년을 맞았지만, 피고인들의 외면 등으로 인해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도입 첫 해인 점을 감안하면 배심원들의 참여율도 높았고, 재판의 질적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대부분 일치해 법조계 일부에서 제기됐던 비(非)법률전문가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 펼친 셈이다.

지난 26일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현)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도 재판부와 배심원의 평결은 크게 아웃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료 선원을 배에서 밀어뜨려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을

토대로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에서는 올해 모두 3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졌다. 3건 모두 배

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은 대부분 맞아 떨어졌다. 26일 열린 참여재판은 제외한 두 건은 모두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이 항소를 포기해 국내에서 실시된 국민참여재판 중 1심에서 형이 확정된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으로 기록됐다.

올해 광주·전남에서는 현재까지 12건이 접수돼 2건이 1심에서 확정 판결됐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철회하

거나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실제 참여재판이 이뤄진 것은 20%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원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야만 참여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너무 단순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배심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형량만을 정하는 재판이 대부분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오리·양돈 축사 잇단 화재 '주의'

전남지역에서 오리·양돈축사에서 화재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오전 7시30분께 곡성군 곡성읍에 사는 이모(54)씨의 메추리 사육장에서 불이 나 내부 면적 230㎡ 중 16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4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던 뒤 1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메추리 부화사

육장도 내부면적 180㎡ 중 130㎡가 불에 탔으며 메추리 1만5천 마리가 죽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새벽 2시50분께에는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유모(69)씨의 오리축사에서 불이나 비닐하우스 8개 동이 전소하고 새끼오리 9천 500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

또 지난 27일 오후 1시50분께 고흥

군 노덕리 오리 축사 앞에서 태우던 쓰레기의 불이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으면서 비닐하우스 13개 동 중 3개 동이 불에 타고 오리 100여 마리가 죽었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축사에 가설된 전선이 노후한 상태에서 과다하게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다 보니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노후한 전선은 교체하고 화기를 취급할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 학동 8거리 이달에만 6건...주민들 불안

광주시 동구 학동8거리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끊이질 않으면서, 소방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6건의 방화의심 화재가 발생해 관계 기관의 순찰 활동이 강화됐지만, 또 다시 화재가 일어나 모방범죄의 확산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찰과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경찰과 경비원을 두 입해 24시간 방화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비슷한 유형의 화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새벽 3시4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8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빙집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던 뒤 30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광주동부소방서 소방차

9대와 소방관 30여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특별한 발화요인이 없는 것으로 미뤄 화재원인을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5일에 2건, 28일 3건 등 이달에만 6건의 방화의심 화재가 발생했다.

광주동부소방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학동 8거리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18건 중 13건 이상이 방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화의심 화재가 잇따르면서 시행사인 광주·전남주택공사와 동구청, 경찰 등 관계 기관이 24시간 방화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넓은 지역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방당국은 이 지역에 빙집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나 노숙자들의 임시거처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

부킹 여성 모텔 유인 돈 '슬쩍'

○...광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 만남'(부킹)으로 만난 여성은 모텔로 유인해 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피해자인 신고로 경찰에 덮미.

○...광주서부경찰은 28일 모텔에 함께 투숙한 상대 여성의 돈을 훔쳐 도주한 L(22)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A모텔에서 K(여·24)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K씨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자신이 나이트클럽에서 낸 솔값 20여 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K씨의 돈을 훔쳤는데,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를 토대로 응의자의 신원을 확보, L씨를 검거.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암! 최선의 예방법은 조기검진입니다.

당뇨병은 조기검진과 적극적인 치료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lt;p